

2023. 6. 2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
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

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장	이수진	6353-0330
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고립가구지원팀장	백명희	6353-0331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담당자	김선미	6353-0334
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복지재단-주택관리공단, 고립가구 발굴·지원 협력

- 서울시 4개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고립가구 실태 분석해 지원방안 모색 협력
- 재단, 공단 임직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이해 교육 및 자문 지원
-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 대상 맞춤형 발굴·지원 기대

- 서울시복지재단(대표이사 김상철)은 주택관리공단(사장 서종균)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임대아파트 거주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.
- 협약서에는 ▲서울시 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고립가구 실태 조사 연구 협력 ▲주택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이해 교육 및 자문 협력 ▲서울시 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고립가구 발굴·지원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.
- 서울시복지재단과 주택관리공단은 올해 서울시 내 4개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고립가구 실태를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여,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-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주택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이해 교육 및 자문 지원을 통해 공단 임직원의 임대아파트 내 주민의 고립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주택관리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 내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.

-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임대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는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”며 “재단과 주택관리공단이 긴밀한 협력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-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되었으며, 고립가구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및 위기대응 총괄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고립가구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- ※ 붙임 1. 업무협약 개요
- 2.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. 끝.

- 일시: 2023. 6. 20.(화) 10:00
- 협약기관: 서울시복지재단, 주택관리공단
- 참석자: 총 9명
(재단) 김상철 대표이사,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, 백명희 팀장, 송인주 선임연구위원, 김선미 주임
(공단) 서종균 사장, 이명희 주거복지기획부장, 류재현 서울지사장, 강병윤 서울지사 팀장
- 서명자: 총 2명(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,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사장)
- 주요 협약 내용

- (재단) ❶ 서울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고립 실태 조사 설계 및 분석 협력
- ❷ 주택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이해도 증진 교육
- ❸ 주거복지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자문 협력
- (공단) ❶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고립 실태 조사 실시
- ❷ 상시 고독사 및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협조



6월 20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임대아파트 거주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.

왼쪽부터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사장,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